다해·제1984호
연중 제5주일
2019년 2월 10일

춘천주보

DIOCESE OF CHUNCHEON
80th ANNIVERSARY
1939-2019

천주교 춘천교구
설정 80주년

[2019년 사목교서]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이사 2,5)

제1독서 이사 6,1-2ㄱ.3-8

화답송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2독서 1코린 15,1-11〈또는 15,3-8.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복음 루카 5,1-11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주세요.

목차

02 특집
기록으로 보는 춘천교구 80년 6

03 말씀의 향기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04 담화 요약
2019년 제27차 세계 병자의 날

05 열린마당
세계 병자의 날 제정의 배경 · 의미

라파엘로 <고기잡이의 기적>
1515-16년, 태피스트리,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런던, 영국

발행인 김운회 · **편집** 문화홍보국 · **주소** (24338)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00 · **전화** 033)240-6012 · **팩스** 033)240-6013 · **이메일** ccjubo@gmail.com

특 집

기록으로 보는 춘천교구 80년 6

▲ 파리외방전교회 본부 전경

파리외방전교회(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MEP) 2

"떠나라! 복음의 군대여, 그대들의 소망을 이룰 날이 왔다. 선교사들이여, 그대들의 발자취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친구들이여, 이생에서는 안녕을.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오."(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파견가 중)

▲ 샤를르 쿠베르탱이 그린 도리·위앵·볼리외·브르트니에르(왼쪽부터) 신부의 선교식 파견 장면

전교회에서 선교사를 파견하는 날이면 본부 정원은 동료를 선교지로 먼저 보내는 전교회 회원들의 노랫소리로 가득 찼다. 동방으로 나가는 선교사는 빠짐없이 이 파견 의식을 치렀다. 조선이란 작은 나라의 신자들을 위해 길을 나섰던 선교사들도 그랬다. 파리외방전교회는 '선교 지역으로의 출발은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194항)이라고 회칙에 정해 놓았다. 왜냐하면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대부분 6개월 안에 순교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견 예식은 더욱 의미 있고 각별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지로 떠나는 그들이 동료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던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본부(Rue de Bac, 128번지)는 단일 건물로는 순교성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건물이기도 하다. 우리교구에서도 장성준 안셀모 신부가 2017년 2월 9일부터 정식으로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의 지원 사제로, 현재 아프리카 피지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스러져간 선교사들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 한국에서 순교한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들

글/ 교회사연구소

02 특집
기록으로 보는 춘천교구 80년 6

03 말씀의 향기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말씀의 향기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동주 시몬 신부
간성본당 주임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일구어야 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신앙인으로서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마음이 편안하지도 않고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아서 허전함을 느낍니다. 이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재주와 능력만을 믿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허탕을 쳤듯이, 우리도 자기 자신의 재주와 능력만을 앞세우고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서 오는 것일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느님을 올바로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나아가 자신의 죄마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기에 하느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 · 권능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특출한 능력과 학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감싸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유능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시고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힘을 기울여 온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지금까지 힘을 기울이고 소중하게 여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나서야 합니다.

2019년 세계 병자의 날 담화 요약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 10,8)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8). 이 말씀은, 거저 주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느님 나라가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파견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버리는 문화와 무관심의 문화에서, '내어 줌'은 개인주의와 사회 분열에 대항하는 가장 적절한 패러다임이 됩니다. 또한 이 '내어 줌'은 민족들과 문화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와 다양한 형태의 인간적 협력을 촉진합니다. '내어 줌'은 성자의 강생과 성령의 강림으로 정점에 이른 하느님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인도의 콜카타에서 장엄 거행되는 병자의 날을 맞이하여, 저는 기쁨과 존경의 마음으로 콜카타의 마더 데레사 성녀를 떠올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가난한 이와 병자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여 준 사랑의 모범입니다. 그분의 시성식에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전 생애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너그럽게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길가에 버려진 채 죽어가는 쇠약한 이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그들의 존엄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이 초래한 빈곤이라는 범죄에 대하여 그들의 책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도시와 삶의 변방에 펼쳐진 성녀의 사명은,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 준 훌륭한 증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콜카타의 마더 데레사 시성 미사 강론, 2016년 9월 4일).

마더 데레사 성녀는 우리 행동의 유일한 기준이 언어, 문화, 인종,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이를 향하여 거저 주는 사랑이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성녀의 모범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가 이해와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이, 특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지평을 열게 해 줍니다.

거저 주는 무상성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누룩이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사회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착한 사마리아인의 영성을 호소력 있게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내어 주고자 하는 깊은 바람에서 나온 가치와 행동과 생활양식을 전달합니다. 또한 이는 더욱 인간다운 의료를 실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톨릭 의료 기관들에서 무상성의 정신이 두드러져야 합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전 세계에서, 가톨릭 의료 기관들은 복음의 빛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시설들은 어떤 희생도 아랑곳 않는 이윤 추구의 논리, 대가를 바라고 주는 논리,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착취의 논리에 대항하여 증여와 무상성과 연대의 의미를 보여 주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 마리아께 여러분 모두를 맡겨 드립니다. 저는 사랑과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저의 진심 어린 교황 강복을 보내드립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04 담화 요약
2019년 제27차 세계 병자의 날
05 열린마당
세계 병자의 날 제정의 배경 · 의미

열린 마당

세계 병자의 날 제정의 배경·의미

2월 11일은 교회가 정한 '세계 병자의 날'이다. 지난 1992년,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루르드 성모 축일인 2월 11일을 세계 병자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제정되었다. 1992년 5월 13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병자의 날을 선포하면서 "병자의 날은 열심한 기도와 연대성 그리고 교회의 선익을 위해 고통을 바치고 병자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계 병자의 날을 맞아 그 의미와 뜻을 알아본다.

아픈 이 돌보며 얻는 '신앙 성숙' 신자들에게 요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2년 5월 13일 교황청 보건사목위원회 위원장 안젤리니 추기경에게 '세계 병자의 날 제정 서한'을 보내면서 이날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이 서한에 따르면 세계 병자의 날 제정의 목적은, 첫째 하느님 백성과 시민 단체와 가톨릭 의료기관이 병약자들에게 최선의 도움을 보장해 주고 병자들에게 인간적·초월적 차원에서 고통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도와주며, 둘째 각 교구와 그리스도교 공동체 수도 단체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보건사목에 투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셋째 자원 봉사자들의 소중한 참여를 더욱 장려하며, 넷째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신적·도덕적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섯째 교구 사제들과 수도 사제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병자에 대한 신앙적 도움의 중요성을 더욱 잘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병자의 날이 제정된 보다 근본적인 이유와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오늘날 이 사회에 가장 긴박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그 응답이 "각 개인들과 공동체 관계 안에서 번영과 건강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소명을 확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봉사"라고 볼 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시대가 요청하는 구원 문제의 핵심을 고통의 세계를 통해 파악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즉 참된 의미에서의 구원이란 '고통받고 있는 인간', '세계에 대한 참된 봉사'를 통해 성취될 수 있음을 세계 병자의 날을 통해 역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세계 병자의 날은 단순히 병자들을 위한 기도의 날로서만이 아니라 환우들에 대한 관심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 헌신의 정신을 더욱 배가시키는 가운데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는 노력을 신자들에게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가톨릭신문, 이주연 기자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청소년 견진캠프
2. 7(목) ~ 10(주일), 강원도청소년수련원
견진 미사: 2. 10(주일) 14시, 죽림동성당

각 지구 구반장의 날
서부: 2. 12(화) 10시, 포천성당

교구청 일정
교구 장학회: 2. 12(화) 10시
참사회: 2. 13(수) 16시
사제평의회 · 인사발표: 2. 14(목) 10시
지구장간담회: 2. 14(목) 14시

김수환 추기경 10주기 추모미사
2. 16(토) 14시, 서울 명동성당

사목회장단 연수
2. 16(토) ~ 17(주일), 가톨릭회관

각 지구 예비신학생 모임
중부지구: 2. 17(주일) 14시, 연봉성당
춘천·남춘천지구: 2. 17(주일) 14시, 스무숲성당
서부지구: 2. 24(주일) 14시, 운천성당

제50차 사회복지법인 정기 이사회
2. 20(수) 16시, 사회복지회관

2019년도 명도학당 1학기 수강생 모집
주제: 가톨릭교회와 구원(전삼용 요셉 신부-수원교구), 대상: 전 신자
3. 11(월) ~ 6. 17(월) 12주, 가톨릭회관 1층 강의실 / 수강료: 8만원(학기당)
매주(월) 19:30 - 21:30
수강신청방법: 각 본당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본당 일괄 신청, 본당 사제가 추천한 가톨릭교회 교리교사 수강료 50% 감면
접수기간: 2. 1(금) ~ 28(목)
접수처: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033-243-4416, F. 033-253-8586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포콜라레(마리아사업회) 2월 모임
2. 10(주일) 14시, 퇴계성당
대상: 성인남녀 · 청소년

교구 여성연합회 월례회의
2. 12(화) 14시, 거두리 사회사목센터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춘천교구 이사회 정기총회
2. 16(토) 10:30, 퇴계성당

17차 정의평화위원회 월미사 /서부지구
2. 15(금) 19시, 포천성당
주제: 가톨릭 시민
강의: 김남희 율리아 교수(가톨릭대학교)

2월 카나 혼인 강좌
영동 · 영북: 2. 16(토) 19시, 입암성당
중부 · 서부 · 춘천 · 남춘천: 2. 23(토) 19시, 애막골성당 / 커플당 3만원
대상: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접수: 사목국(033-240-6050, 일주일 전 마감)

재속 프란치스코회 월모임
2. 16(토) 13:30, 춘천 말딩회관
2. 17(주일) 13:30, 강릉 주문진성당

춘천교구 설정 80주년 기념 및 사제서품 50주년 금경축 축하 한국 오라토리오 싱어즈 헌정음악회
3. 1(금) 19시, 죽림동 주교좌 성당
(사)한국오라토리오싱어즈(지휘 최병철)
☎ 010-4851-9646 공연문의/전석 무료

126차 ME 주말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 영성 프로그램
3. 8(금) ~ 10(주일) 춘천 가톨릭회관
참가대상: 결혼 5년 이상 부부, 신부님, 수도자
참가신청: 오명환 루치아노 · 박남희 루시아 부부
☎ 010-6373-8062, 010-8799-3821

레지아 소속 Co, Cu. 단장 연수
2. 9(토) ~ 10(주일), 가톨릭회관

춘천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상설기도회: 2. 12(화) 19 - 23시, 운교동소성당
강사: 김재중(광주교구), 미사: 박순호 신부
낮기도회: 2. 18(월) 13 - 17시, 운교동소성당
강사 · 미사: 홍기선 신부(죽림동주교좌성당 주임)

렉시오 디비나(성독)
2. 20(수) 10시 접수 - 16시 미사, 교육원

영북지구(설악산) 운전기사사도회 월례회
매월 세번째(수), 19:30 미사 후 회합
장소: 교동성당/☎ 010-5005-5499 총무

춘천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월모임
매월 세번째(목), 18시 회합 후 19시 미사
운교동성당/ 회원모집/☎ 010-2530-8453 회장

인 준 시 설

운교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목욕) / 주간보호 어르신 모심
대상: 춘천지역 노인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모집(연중 모집)
대상: 자가용 운전 및 도보 가능자
☎ 033-255-8980, 010-4274-1666

예리코클리닉 봉사 · 후원자 모집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무료진료봉사단체
진료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원팀: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치기공사, 치위생사
운영팀: 통역, 의료행정, 차량
매월 마지막 주일 11:30 가산센터로 출발
후원계좌: 신협 131-019-611551
신한은행 100-032-914833
예금주: (재)춘천교구천주교회
☎ 033-264-3547 문의

성소모임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2. 16(토) 14시	서울 개화동	010-3800-1579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 · 김경옥 비르짓다

함경도 아바이 젓갈
한국인의 밥상 KBS 1TV 촬영
가자미식해 촬영지/ 가자미식해, 명태 식해, 명란, 창란 외 각종 젓갈
☎ 632-6561, 010-3341-0470
양수근 임마누엘 · 박순옥 임마누엘라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속초 동명항(영금정)
바다축제(착한가격)
대게, 킹크랩, 붉은대게, 찜 전문점
네이버에 '가재랑 대게랑 바다축제'
위치: 영금정로20(동명동1-83)
☎ 033-635-0059, 010-3756-9380
조칠성 베드로, 이선희 벨라뎃다

인 준 시 설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 직원모집
모집: 간호사, 간호조무사 0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허증
☎ 010-3186-0333, kkotnoch@daum.net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
어르신 · 요양보호사 모집, 주간보호/ 방문요양
대상: 장기요양등급자(속초 · 고성군)
☎ 033-638-6012 문의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릉분소 직원채용
청소년 지도사 1명/ 2. 12(화)까지
홈페이지 참조 www.gwysc.or.kr(공지사항)
☎ 033-641-3990 문의

강원도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 학업을 도와드립니다
대상: 만9 – 24세 학교 밖 청소년
내용: 학업 · 사회진출지원, 문화 및 직업 체험, 자기계발 프로그램
☎ 033-257-9805 박민근 상담원

갈바리노인복지센터 어르신모집
1~5등급 재가등급 받으신 어르신을 모집
방문요양, 방문목욕(강릉)
☎ 033-644-3477, 3474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인상담무료(청소년 및 학부모), 심리검사(7천원)
화 ~ 토 9시-18시(12-13시 점심), 월요일 휴무
☎ 033-818-1388, www.cool1388.com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이 고민이 있을 때! 청소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청소년에 관한 도움이 필요할 때!
– 일반전화: 1388 /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 365일 24시간 무료이용

일 반 알 림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마감: 3. 31(주일), 대상: 성경공부를 하고싶은 분
http://cyberbible.casuwon.or.kr
☎ 010-7470-7966 문의

라파엘여행사 ☎ 02-778-8565
5. 7(화), 6. 4(화) 이스라엘 · 요르단 10일(289만원)
3. 18(월), 4. 22(월) 성모님 발현 13일(389만원)
3. 19(화), 5. 12(일), 6. 23(일) 나가사키(94만9천원)
3. 17(일), 4. 7(일), 5. 5(일) 다낭 5일(129만원)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학교 학생모집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기간: 2019. 3월 ~ 12월(2월 예비학교)
혜택: 교육비 전액 무료, 수당 지급, 취업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6.4%)
☎ 02-828-3600/www.donbosco.ac.kr

예수회 후원회 해외성지순례
4. 22(월) 이태리 일주 12일 – 370만원
5. 14(화)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14일 – 390만원
6. 3(월) 발칸반도 3국 11일 – 370만원
☎ 02-722-8366 (주)크로바여행사

2019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내용: 성서, 교의, 전례 등 26과목
원서접수: ~ 2019. 2. 13(수)
홈페이지 ci.catholic.ac.kr 원서다운가능
☎ 02-745-8339 문의, 우편신청가능

분도여행사 ☎ 02-852-8525
5. 1(수) 바오로 사도 전도 여행지, 터키 · 그리스 순례 13일(395만원)
5. 24(금) 코카서스 3국 순례 13일(415만원)
* 공동경비 포함

살레시오회 겨울 성소 대피정
2. 23(토) ~ 24(주일), 대전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 / 대상: 심신 건강한 중 · 고 · 대학 · 일반 35세 이하 미혼 남성
☎ 010-3894-1332 문의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63만원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지도: 송진욱 신부
☎ 010-3645-9028 주관: 가고시마교구

춘천가톨릭신협 문화아카데미 1학기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2. 11(월) ~ 15(금) 5일간
반별 선착순마감/ 조합 방문접수만 가능
수강료 과목당 2만원
☎ 033-255-6742 문의

2월 10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를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닦게 하소서
이해인 수녀 〈말을 위한 기도〉 중에서

제28차 정기총회 안내
2. 22(금) 10:30
죽림동 주교좌 성당
조합원님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당일 업무는 휴무합니다.
☎ 033-255-6742 춘천가톨릭신협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
석사점 · 홍천점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인터넷 · IPTV가입 · ADT캡스 가입
☎ 263-6911 석사점, 432-3011 홍천점
정혜영 비아 · 이창민 루카

춘천 중고차
카플러스 자동차
투명한 판매로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김유정로 1822(퇴계동)
카플러스자동차/ 전 차종 판매 · 매입
☎ 010-7436-0079, 010-4176-2745
황병렬 비오 · 김미숙 세실리아

수맥 흙 침대
27년 공장직영, 흙쇼파
주보지참 교우 우대
☎ 1588-5335
이법 스테파노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 · 김길영 마르티노

영순네 횟집
국내산 · 자연산 활어회 전문
물회, 매운탕, 회덮밥, 대게
위치/ 고성군 토성면 봉포 해변길99
☎ 633-8887, 010-8791-4220
이순석 베드로 · 박영희 요셉피나

구(口)구(口)집
물회 · 성게비빔밥
전국택배 · 포장 · 당일버스배송
☎ 636-1888 속초시 중앙로 341
박암 미카엘 · 김선희 미카엘라

춘천주보 상호광고 접수 모집
광고기간: 3개월(12주) / 6개월(24주)
구비서류: 교적사본, 사업자등록증(필수),
광고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www.cccatholic.or.kr
*금액 및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를 참고해주세요!
☎ 033-240-6012 문화홍보국